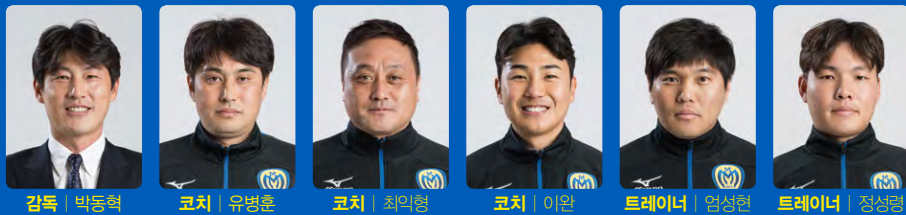


COACHING STAFF



GK



DF



MF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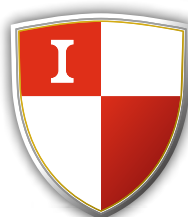


NEXT HOME MATCH UP



아산 무궁화 FC

VS



부산 아이파크

K LEAGUE 2 | 13R

2018. 5. 28(월). 19:3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12R

2018. 5. 19(토).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대전 시티즌

험난한 최강자의 길, 민상기의 자성

아산은 KEB하나은행 K리그2(챌린지) 2018 개막 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았다. 스쿼드의 무게감만으로도 다른 팀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스타 군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볼 때 중반부에 돌입하고 있는 이번 시즌 순위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승격을 다룰 수 있는 순위는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승격 직행권이 주어지는 1위 성남 FC와 격차는 제법 나는 상황이다. 이 순위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부주장으로 뛰고 있는 민상기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민상기는 위기감을 느낀다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동료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였다.

DF 민상기 PROFILE

생년월일 1991. 8. 27.
포지션 DF
신체 조건 184cm 75kg
등번호 39

데뷔 2010년 수원 삼성
소속 팀 수원 삼성(2010년~2017년 5월) -
아산무궁화(2017년 7월~)

K리그 통산 98경기 2득점 1도움
아산 통산 19경기 1득점
2018시즌 기록 10경기

Q. 팀이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평한다면?

A. "사건이지만, 예상 밖의 시즌이라 봐요. 남은 경기가 많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저조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Q. 아산은 K리그2 최고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고 나가지 못해 아쉽다. 수비의 중심으로서 책임감이 꽤나 클 듯하다.

A. "최고의 전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부진한 것에 대해 수비수가 아닌 부주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색은 못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Q. 지금의 상황을 반전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가?

A. "우리는 상당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수비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상대 지역에서 세밀하고 신중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대처하는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Q. 다가오는 대전전과 28일 부산전은 아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듯하다. 선두로 뛰어오르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A. "사실 매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즌을 치르다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경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2연전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죠. 특히 부산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 봅니다. 이 경기를 잡으면 분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Q. 전역 후 K리그1에서 아산과 승부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듯인데 아산의 승격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A.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결과로 보여드려야죠. 아산은 제게 정말 특별한 팀입니다. 프로 선수로 데뷔한 후 처음으로 수원이 아닌 다른 팀에서 프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깐요, K리그에서 만난다면 정말 영광일 겁니다."

Q. 중심 선수로서 동료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또한 아산의 승리를 바라는 팬들에게 남기는 각오를 들려 달라

A.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어 영광이지만, 결과가 따라와야만 빛이 바래지 않는 법입니다. 다들 개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빛낸다는 마음으로 동기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팬들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십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구동성(異口同聲), "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창용(MF) "민상기 선수의 말처럼, 기대한 만큼의 성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점점 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좀 더 노력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봐요. 팀이 승격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력은 물론 팀원 모두가 강한 마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주장으로서 팀이 어두울 때 보다 밝은 힘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그 힘을 통해 승격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재안(MF) "나 역시 (민)상기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즌 초반을 거치면서 상대의 전력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쉽게 생각할 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기대가 컸던 탓에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두와 그리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봐요. 아직 시즌의 반도 치르지 않았습니. 충분히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전할 겁니다."



역대 전적



골득실



KEY PLAYER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간 해도, 대전은 K리그 17까지 경험했으며 K리그2를 정복했던 경험까지 지닌 클럽이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골잡이 가도예프를 앞세워 최근에는 연거푸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여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상대다. 그런데 상대의 페이스와 전력보다 팀 내부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듯하다. 앞서 민상기의 인터뷰에서 봤듯 아산은 보다 높은 순위로 오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임에도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상대에 대한 방심일 수 있고, 반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담에 짓눌려서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심리적 문제점은 스스로가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이다. 경험과 실력을 고루 갖춘 아산 선수들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FC 안양전에서 멀티골을 성공시킨 안현범이다. 측면이 약한 대전의 약점을 그가 마음껏 공략한다면 지난 원정 맞대결에 이어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PLAYERS POSITION

4-4-2

